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한인[1] 거주지 이동

The Korean Migration in Vladivostok, Russia

장은영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cbeta02@snu.ac.kr)

한인 13가구가 최초로 러시아로 이주한 1863년 이후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초기에는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한인촌을 형성하였으나 점차 연해주는 물론 동시베리아 지역으로까지 확산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도시의 건설 및 성장과 함께 한인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었고, 두 차례에 걸친 강제 이주와 한 번의 자발적 이주로 위치가 이동하였다[2].

공식적으로 '**까레이스까야 거리** (한국의 거리)'라 명명되었던 최초 거주지는 아무르 만 연안에 위치한 초기 정착지가 인근으로 확산되어 형성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여러 초기 거주지 중 가장 중심성을 지닌 공간이었던 이 곳은 블라디보스토크의 성장으로 도시 중심부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당시 러시아 제국과 경쟁관계였던 일본 제국주의의 신민인 한인의 정착지가 도시 중심에 있는 것은 국가 보안상 위험하다고 시 정부는 판단하여 콜레라 근절을 명분으로 까레이스까야 거리의 한인들을 도시 북동쪽의 변두리로 강제 이주시켜 버렸다.

강제이주로 형성된 **신한촌**은 까레이스까야 거리에 비해 한층 안정되었고 해외 동포사회에서 정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이는 블라디보스토크의 탁월한 교통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여러 사회・경제적 요소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과 연이은 시베리아 내전 이후 한인들은 잠재적인 일본의 스파이로 간주되어 적성민족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소련 정부가 국경지대 소수민족에 대해 유화적인 정책이었던 피드몬트 원칙에서 인종청소와 같은 극단적인 방향으로 전환한 가운데, 스탈린은 '중앙아시아 개척'을 명분으로 극동지역의 한인들을 모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켜 버렸다.

강제 이주된 한인들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재이주**는 구 소련 붕괴 이후 본격화되었다. 학위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자발적 재이주를 블라디보스토크의 장소성에 근거한 것으로 전제하고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제약'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주된 배출요인으로, '한국 관련 직종 취업의 용이성'이라는 경제적 요인이 주된 흡입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흡입요인은 '한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이라는 장소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블라디보스토크는 한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을 지닌 장소이다. 이러한 특성에 탁월한 교통입지, 정치적 상황이 과거의 한인 집단 거주지로서 상징성을 형성하였고 거주지를 이동시켰으며, 또 재이주를 유도하였다. 비록 블라디보스토크에 국한하여 한인의 거주지 이동을 연구하였지만 이를 통해 러시아 거주 한인의 이주 특성을 부분적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1) 본 고에서의 한인은 러시아 국적을 소지한 '고려'인 혹은 '까레이스키 Корейский'들을 의미한다.
2) 이러한 구분은 이주 의사 결정의 자발성 여부에 근거한 것이다(이희연, 1989, 「인구지리학」, 법문사).